

한국 현지 리포트-한국의 대학생할

여러분은 대학 생활하면 어떤 추억이 있나요? 저는 ‘대학생’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설레는 청춘이 떠오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본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할 것은 한국 대학 생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과잠’ 문화입니다. ‘과잠’이란 대학 학과가 표시된 야구점퍼로 대학생이 학생회를 통해 단체로 맞춰 입는(공동구매) 잠바를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학 홍보 굿즈와는 달리 학교명과 전공, 학번 등 소속원임을 알 수 있는 재학생 전용 아이템으로 특히 1학년은 ‘과잠’ 입는 것을 대학의 로망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과잠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로 서울대학교 럭비부에서 입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잠’의 디자인은 보통 가슴과 등 부분에 학교와 학과 이름을 넣고 팔에는 학번이 들어갑니다. 색상은 학교 상징 컬러로 결정되기도 하고 어깨 부분 등에는 학교 심볼을 넣기도 합니다.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에는 야구점퍼 형태의 과잠이 많고 겨울에는 보온성을 높은 툰패딩 과잠을 자주 입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과잠’ 문화에 대해 한국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존재합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우선 가성비가 좋고, 연대감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모 대학 1학년 손성빈 군 역시 “가격도 3만원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학교 이름이 적힌 과잠을 입으면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도 과잠을 구입해 입음으로써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과잠’이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특히 명문대 과잠을 입는 학생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일명 SKY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은근 즐기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고 수험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의 과잠을 프리마켓에서 사서 동기부여를 한다고도 합니다.

앞서 MZ세대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만, 남과 다른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 대학생들이 ‘과잠’이라는 획일성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 대학에 단체 ‘과잠’이 등장한다면 여러분은 ‘과잠’을 입고 싶으신가요?

정경진(부산대학교)